

온난화에…나무심기 서두르는 지자체들

식목일 무용론 속 장흥군 50일 당겨 지난달 식재

“4월에 심으면 대부분 고사”…광주·해남 등 3월 행사

장흥군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15일 열었다. 정부에서 정한 식목일(4월5일)보다 50일 가량 앞서 나무심기를 한 것이다. 장흥군은 이날 주민들과 관산을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 해송과 동백나무 520그루를 심고 황칠나무 600그루를 주민들에 나눠줬다. 장흥군 녹지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행사를 치러보니 서울·강원지역은 몰라도 남도(南道)의 경우 식목일에 맞춰 심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상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식목일 무용론, 일자 변경 논란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식목일이 과연 나무 심기에 적합한 날인지, 전남과 제주 등 남부지방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적으로 나무심기를 장려할 만한 기념일로 삼아도 되는지 여부다.

특히 올해는 광주의 경우 봄꽃 개화 시기(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 발표 벚꽃개화)가 평년보다 4일 빨라지는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남도는 늦어도 3월 중순 안에 나무심기를 마쳐야 한다. 전국적으로 같은 날(식목일)에 나무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로 내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5일 광주·전남에서 장흥군이 올해 들어 가장 먼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를 한데 이어 3월부터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나무심기

행사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광주시는 이달 20일 광산구 황룡강 제방 주변에서 시민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한다. 이날 광주시는 참가자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안내한 뒤 목련 300주, 라일락 900주를 심기로 했다. 해남군도 이달 22일 삼산면 대흥사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군 주관 아래 산림조합 관계자, 임업관련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은 이날 단풍나무 7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여주시도 27일 웅천동 웅천공원 일원에 동백나무 14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식목일에 맞춰 나무심기 행사를 열지 않고 1개월가량 앞서 개최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나무를 심는 ‘적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림 및 녹지 담당 공무원들은 “식목일에 맞춰 나무를 심었다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봄가뭄을 만나 나무가 죽기 일쑤”라며 “열었던 땅도 2월 중순이면 녹고 낮기온도 영상권에 들어 나무 심기에 무리가 없다”고 식목일 무용론을 펴거나 일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산림청은 그러나 현재와 같이 4월5일을 식목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72회째를 맞는 식목일의 전통과 상징성 때문이다. 또 조선시대 성종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논을 경작한 날이라는 역사성도 강조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은 식목일 하루 또는 식목일에 맞춰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식목일은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일 뿐 지역 환경에 따라 나무심기를 하면 된다”면서 “현재로서 식목일 기념일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식목일을 바꾸자는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식목일 변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난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부대 입학식 다이버들의 축하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남부대수영장에서 열린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광주시 소속 다이빙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해질 08:39
해진 18:26 달뜨기 21:18

축축한 남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14 보성 2/12 순창 2/13
목포 2/12 순창 2/13
여수 4/12 영광 4/13
나주 2/13 진도 3/12
완도 3/13 진주 1/14
구례 2/13 군산 0/13
강진 0/13 남원 2/13
해남 1/13 흑산도 5/12
장성 1/13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남동~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 서~남서 1.0~2.0

◇물때

목포 간조 09:10 만조 03:57
21:32 16:21
여수 간조 04:38 만조 11:03
17:04 23:21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0/5 -2/11 -1/13 2/13 1/10 -1/10 0/9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봄 재촉하는 비…주말부터 포근

1일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mm다.

비는 2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

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영광 낮 최고기온이 4도, 함평 6도, 광주·장성·화순이 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관계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출갓이나 주말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자녀 1명 대학 졸업 4억 육박

3시간 운전시 ‘30분 휴식’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교육비 때문에 4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교육을 최대 수준으로 하느냐 최소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1명당 대학까지 교육비가 1억~3억원에 달해 최소와 최대 격차가 2억원이 넘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지난 28일 ‘행복리포트 34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양육비를 추산한 결과, 3억967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기준으로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 22년간 들어간 양육비 3억896만원은 3년전의 2009년의 2억6204만원과 비교해 14.12%(3700만원)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03~2012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준으로 올해 양육비를 추산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환승 시간 단축

상행선 26분→13분, 하행선 29분→17분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 운행방식이 개선돼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체를 받았던 환승 대기시간과 역간 운행시간이 단축돼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시간 등을 개편해 운행을 시작했다. 셔틀열차 이용 후 KTX나 SRT를 타기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상행의 경우 평균 26분에서 13분으로 줄었다. 하행의 경우 29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됐다. 14km 거리인 두 역간 운행시간은 17분에 15분으로 줄었고 통근시간대를 고려해 운행시간도 일부 조정했다.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은 동·북구 주민 교통 편의 보장과 광주역 활성화와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하루 30회 무궁화호 셔틀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편도 운임은 2600원으로 KTX 환승 승차권 구입시 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남짓, 택시로도 30여분이 소요된다. 광주송정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 51편(상행 24편·하행 27편)과 연계 환승할 수 있다. 환승열차표 보유 승객(SRT 제외)은 광주역 코레일 주차장(100면)을 하루 5000원(50% 할인)에 이용할 수 있다. 중간 정차역인 극락강역 주차장(50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8월까지 셔틀열차를 시범 운행한 뒤 이용객이 하루 800명이 넘으면 운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 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분양 모집중

